

전세가율 90% 넘는 주택 '보증보험 가입' 못 한다

정부가 빌라왕 사기를 막기위한 대책을 내놨다.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듣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그러자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심하라며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다. 보증보험을 악용한 전세 사기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듣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은 평균 98%다. 전세가율 90% 기준을 적용한다면 김씨 소유 주택 대부분은 보증보

정부 전세사기대책 발표...보험대상 전세가율 100%→90% '6년만에 하향'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감정평가사 1회 처벌시 자격취소 '원스트라이크아웃' '안심전세앱' 서비스 개동...수도권부터 시세 등기부 변경시 카톡알림 등 제공

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전세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위험 계약을 회피하는 기준으로 90%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갹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신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가 54.4배까지 올라왔다.

또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는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실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가입 때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세가율과 전세보증 상품에 대한 선입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례도 드러난 만큼, 지금까지는 제한없이 채용하던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정평가사는 지금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법을 고쳐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1일 정오부터 시작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에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7월에 나올 2.0버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eessw@jeonmae.co.kr



'입춘대길 건양대경'

입춘을 이틀 앞둔 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입춘첩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황기영기자

고양~양재 지하고속도 이르면 2027년 착공

자유로-강변북로-양재C 지하화 KDI 민자 적격성조사 관문 통과 연결시 '강남-고양 30분대' 가능

경기 고양시와 서울 강남권을 잇는 지하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고양-양재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조사가 최근 통과돼 자유로 지하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에 문의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올 하반기에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받는다"는 답을 얻었다.

시는 해당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삼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7년에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습 정체구역인 자유로-강변북로-양재C 구간이 지하로 연결되면 고양에서 강남까지 30분대 통행이 가능해진다.

고양/임청일기자 imcd@jeonmae.co.kr

韓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 내외 전망"

물가상환 점검회의 개최 中 리오프닝 등 불확실성 국제유가 등 물가상·하방 압력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에도 5%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물가 경로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2일 오전 한은 본관 15층 회의실에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축소됐으나 전기료 인상, 환화에 따른 농축수산물가



격 상승 등으로 전월보다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근원물가 상승률은 공업제품(석유류·가공식품 제외)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음에도 외식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

이 이어지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전월 상승률(5.0%)보다 0.2%포인트(p) 높은 것이다.

식료품·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4.1%로 전월과 같았다.

이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는 이달에도 5% 내외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2023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군민 안녕과 화합,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2023. 2. 5.(일) 11:00~ 청도천 둔치

[주최] 청도군
[주관] 도주중앙기전승보존회 / 달집전승보존회

단신브리핑

국제금강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맞손

세종시가 국제정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IGTN)와 손을 잡았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서정길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정원관광도시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 해외국 유치·홍보, 정원관광도시 조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발굴 협력, 정원관광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 등 자료, 국내외 정원관광산업 분야 학술정보 상호교류 등이다.

세종/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토지이용현황 지적통계 확정

충북도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도내 전체 면적 7407㎢, 지번 수 237만 필지로 지적통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등을 기초로 행정구역별, 소유구분별, 지목별 등 토지의 면적과 필지수를 집계한 통계이다. 시·군별로는 충주시 983.6㎢(13.3%), 청주시 941.1㎢(12.8%), 제천시 882.8㎢(11.9%) 순으로 면적이 크고, 증평군 81.8㎢(1.1%), 진천군 407.4㎢(5.5%), 음성군 520.1㎢(7.0%) 순으로 면적이 작다. 소유구분별로는 개인소유가 3372.0㎢(45.5%), 국·공유지 2763.4㎢(37.3%), 법인 566.4㎢(7.6%), 종중 563.1㎢(7.6%) 순으로 면적 비중을 차지했다. 청주/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수출 간소화 지원' 협약

경기 수원시와 경인지방우정청이 '중소제조기업 제품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와 경인지방우정청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소제조업체 수출제품 국제운송 지원을 위한 수출 절차 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수원/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충남도, 올해 공사·용역 발주 4조...상반기 65% 집행

지난해 3조 4281억보다 6922억 늘어...SOC 국비 추가 확보 '효과' '상반기 중 신속 집행-도내 업체 참여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올해 충남도내 공공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발주 금액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발주 금액의 65%를 상반기 내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총 5097건 4조 1204

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429건 3조 4281억 원보다 6922억 원, 20.19% 증가한 규모로 지방도 정비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형별 발주 금액은 건설공사 3585건 3조 5210억 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1512건 5993억 원이다.

이 중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304건 8260억 원이다. 주요 공사와 금액을 살펴보면 두마~노성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931억 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 824억 원, 칠산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305억 원 등이다. 시군은 천안 565건 4852억 원, 서천 330건 1239억 원, 공주 96건 1024억 원, 홍성 253건 881억 원, 아산 299건 852억 원 등 총 3281건 1조 2752억 원이다. 시군 주요 사업으로는 입장처리본

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385억 원, 우성(동대, 상서, 대성)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172억 원, 윤양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200억 원,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54억 원, 비인 다사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70억 원,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283억 원 등이 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중부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949건 1조 1055억 원의 건설공사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한다.

도교육청은 447건 3184억 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84건 5770억 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32건 181억 원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올해 공공 발주 정보를 도내 업체에 제공해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등 민간 대형 건축공사와 공공기관 대형 공사에 공동 도급이나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한상규 기자



도심공항 터미널 운영 종료 2일 체크인카운터·탑승수속·수하물위탁·출국심사 등 공항 터미널 업무를 종료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의 모습. 공항 업무를 제외한 리무진버스는 정상운영된다. 연합뉴스/류영석기자

서울시, '강통전세' 예방·지원 대책 마련 나섰다

서울시가 '강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강통전세·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영한다. 센터는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 상담, 분쟁 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가해 전세보증금

세시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인 가운데 빌라·예상 분양가 등 전세 거래할 때 유용한 지표 개발과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도 병행한다. 이달 중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과 단속에 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태가 들어오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에 나선 방침이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자체 최초 전세 거래시 시장지표 정보 플랫폼 구축 등

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에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마련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8월부터 '전·월세 정보망'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는 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임대차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전

또 전·월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재무 현황'을 추가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강통전세·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악성 중개업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경기도, 시·도 협력 관광정책 지원사업 추진

한번 여행에 여러 개 시군 이동하는 관광객 유치 전략과제-공모과제-자율과제 등 관광정책 공모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내 여러 개 시군을 이동하며 즐기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발굴과 추진에 나섰다. 도는 '도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부터 각 시군을 지원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3월 초 시·군의 참여와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시군 관광정책 과제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광정책 과제 공모는, 전략과제, 공모과제, 자율과제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전략과제는 도가 직접 시·군 또는 광역 간 연계형 관광사업을 발굴해 컨설팅하는 내용으로 발굴된 과제 추진 등 전반적인 작업을 도가 지원한다. 이어 공모과제는 시·군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도가 인접 시·군 간 연계를 돕거나 전문

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자율과제는 각 시·군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가 기본 구상과 실행계획 수립, 타 시·군 협력 등을 지원한다. 도는 공모 통해 올 상반기 시군별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시·군의 정례적 소통 기회도 남부와 북부를 나눠 반기별 1회 마련할 계획이다. 최용훈 도 관광산업과장은 "코로나 19 방역 완화로 관광시장이 회복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잠재력 있는 관광정책을 발굴 지원해 도의 관광 매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한상규 기자




정원이자면, 만족할 만두 하지







앱서 신축빌라·소형아파트 시세 보고 악성임대인도 가려낸다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앱' 서비스 개통... 수도권부터 시세 제공
등기부 내용 바뀌면 카톡 알려줘...동의없이 집주인 정보 받는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전세 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을 개발해 2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이 서비스를 이날 전격 가동하고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와 신축빌라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에서는 신축 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오는 4월에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오는 7월에 나올 20버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 자가진단하는 기능도 갖는다.

임차인이 선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격과 평균 경매 낙찰가를 토대로 적정한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그래프로 보여준다. 또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그동안 '깜깜이'였던 집주인 정보도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될 예정이다. 다만,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법안이 개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집주인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눠 차츰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

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4월 앱 개선 후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앱에서 '푸시' 형태로 보내고,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임차인의 앱 화면에 정보가 표시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앱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이후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을 조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승두기자

하고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모

바일 HUG 앱과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위한 역할·인프라 강화 필요”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역할과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도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에너지 다소비사업자가 전국 최다규모지만 이들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0.23%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전국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가장 많아 2021년 기준 1천143개가 소재해 있으며(23.5%), 에너지사용량

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전국 대비 17.6%). 사업자 수와 사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해 2013~2021년 동안 각각 연평균 5.2%,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연구원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방안’ 보고서 발간
사업자·사용량 전국 최다규모 불구 신재생에너지 자가생산량 0.23% 불과
국내외 RE100 이행·아파트 에너지 진단 효율화 등 지원 대폭 확대해야

지역별로는 안산시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가장 많으며(157개, 13.7%), 그다음 평택시(110개), 화성시(106개), 용인시(99개), 성남시(83개) 순이다. 최

근 9년(2013~2021년) 동안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김포시로 연평균 21.8% 증가했으며 그다음 연천군(18.9%), 포천시(14.7%), 의왕시(14.7%), 남양주시(14%)에서 증

가율이 높았다. 2021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1천 980억 원을 투자해(전국 대비 21.4%) 에너지사용량의 1.39%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과 비슷한 절감률(1.4%)을 보였다. 비용 대비 절감 효과는 산업부문(1천452.6toe/10억 원)이 건물 부문(483.8toe/10억 원)보다 3배 높았다.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1만 5천452toe로 에너지사용량의 0.23%에 불과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예산, 인력, 조직 등 지자체 정책집행 가능 확충과 함께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 등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광주·전남 상생발전 협력 강화 단계적인 경제·행정통합 필요”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발표

광주·전남은 상생 발전협력과 단계적인 경제·행정통합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일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광주·전남은 단계적으로 상생발전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와 행정통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생발전 협력과 관련해 광주·목포권, 광주·목포권·전남 동부권의 발전 과제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통합을 위해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첨단 복합도시 유치 등 18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광주·전남특별광역

시와 광주전남특별자치도 형태의 통합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양 시·도가 상호이익의 극대화, 관역 내 균형 촉진, 법·제도의 효율적 활용, 시·도민의 적극적 참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광주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우선 상생발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경제통합·행정통합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시도 간 상생협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약/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오늘, 매일, 그리고 미래의 가치

오늘, 지친 마음까지 밝혀주는 건
전기가 가진 하루의 가치입니다

매일매일,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는 건
전기가 전하는 365일의 가치입니다

100년 후에도, 하늘과 숲을 푸르게 하는 건
전기가 만들어갈 100년의 가치입니다

오늘, 매일,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의 삶이 풍요롭도록
합리적 전기요금으로 국민과 함께 전기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기초공급약관 개정사항 안내 ('23.1.1 시행)

01 전기요금 조정
모든 소비자 11.4원/kWh 인상
(단, 농사용은 3년간 분할하여
매년 3.8원/kWh 인상)

02 기후환경요금 조정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1.7원/kWh 인상
(7.3 → 9.0원/kWh)

03 취약계층 보호 ('23.1.1 ~ 12.31)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할인 고객
월평균 사용량 313kWh까지 요금 동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 단가 적용)

04 제3자·직접PPA 고객용 전기요금 신설
재생에너지 거래 고객의 합리적·효율적
전력소비를 위한 전용요금제 신설

기초공급약관 개정사항에 대해 궁금하신다면, 고객센터(123) 또는 관할 한전지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 개막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2일 시작했다. 등록 첫날인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는 직접 후보 등록을 하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모였다. 등록 접수는 오전 9시부터였지만 '1호 등록'을 노린 후보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대기 줄을 섰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가장 먼저 등록하기 위해서 오전 7시 30분에 왔다"고 말했다.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는 의원실 관계자가 오전 8시 10분께 미리 도착해 '2번'을 받았다.

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서는 "30여 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로 시험대에 서게 될 것"이라며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우리 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진윤'(진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는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윤안연대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난번 대선 때 후보 단일화가 됐겠나"라고 응수했다. 오전 10시 5분께 지지자들과 함께 당사가 도착해 후보로 등록한 김 후보는 "혼신의 힘을 바쳐 선당후사 하

'1호 후보 등록' 위해 아침 일찍부터 대기 줄 김기현·안철수 등 직접 당사 찾아 등록 마쳐

이밖에 황교안·안철수 당 대표 후보 측, 지성호 청년 최고위원 후보 측이 차례대로 후보 등록 대기 순번을 받았다. 이후 김기현·조경태 당 대표 후보가 당사를 찾았고, 윤상현 당 대표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 절차를 마쳤다. 직접 당사를 방문한 후보들은 등록 후 별도로 마련된 연단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4번째로 등록을 한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등록을 했다. 경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등록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는 최상의 조합"이

면서 반드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나 전 대표와 서로 필요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은 3일까지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 후보들의 자격 기준을 심사하고, 8~9일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10일 본격적인 진출자를 발표한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野 '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 쌍끌이 공세

'처럼회' 의원 30명 밤샘농성... "檢독재 정권 맞서 강하게 행동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상민 탄핵'과 '김건희 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며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 오는 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장외투쟁 성격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원내·외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 대어 투쟁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주축으로 한 민주당 의원 30명은 김건희 특검 및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 의원 모임을 결성해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농성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맞서 강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폭정 앞에서 180석이 넘는 야당은 무엇을 하느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국민들의 물음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즉각 파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도 했지만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회가) 이 장관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범이란 잣대가 누구에게나 성역 없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죽었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법이 국민에게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

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듣고 되도록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에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특검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이어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 위해서는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전체 국회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사위 내에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반대가 걸림돌이고, 18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선 여론전을 통한 대국민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날 출범한 당내 '김 여사 추가조사 전 상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특검 도입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개회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백승기

정진석, 野 '검찰 독재' 반발에 "李 '범죄 독재'"

'이재명 방북용 쌍방울 대북송금'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검찰 독재'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의 이재명 정치야말로 '범죄 독재 정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독재 정치'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과 법원을 차례로 숙여넣기 면 범죄자의 독재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 대표는 지금 백일몽을 꾸고 있는 것이냐"라며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이 자신의 방북용 자금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을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선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라며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쌍방울 내의를 입었다는 이유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지불했느냐"라며 "3살 아이도 웃을 일이다. 이 대표는 현란한 요설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

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발뺌하거나 남 탓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도 이 대표는 아마도 자기는 몰랐다고 잡아뭇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오는 4일 대규모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인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작정인가"라며 "장외집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박홍근 "국방·운영위서 '천공' 대통령실 이전 개입의혹 묻겠다"

'무임승차' 문제에 "PSO법 처리하자" 승차 연령 단계적 상향 등 사회적 합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역술인 '천공'의 국정 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지하고 감춘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과연 누가 승인해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뉴스도마토'가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권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것을 거론하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 '유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

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고 한다"며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천문학적 현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 "당권 싸움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표만 계산하는 집권당의 처지를 모르지 않지만 참 철딱서니가 없다"면서 "지금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닌 민생 비상 상황"이며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또 지하철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가 주도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앞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추진하는 의원들의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 토론회를 방문해 "권력 높음에 빠져서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그의 부인도 집권 여당도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고 평화는 위태롭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분의 2 가량이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수층에서도 40% 대가 나왔다"며 "이런 정도면 더는 검찰의 수사에 맡길 일이 아니다. 김 여사 추가 조사 혐의와 관련한 특검 도입은 반드시 국민을 대신해 관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KB금융그룹 | 국민이 함께 금융 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할 때입니다

BUY KOREA BUY BOND

대한민국 국공채, 국내 우량채권을
KB증권에서 투자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5595호(2022년 10월 28일~2023년 10월 27일)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계약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안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부도·파산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등급은 AAA/AA+/A/BBB+/0-1순으로 구분됩니다.

KB증권



사계방향으로 진주시 종합무역사절단이 한철레상공회와 방문. 진주시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중남미 신시장 개척 MOU 체결. 진주시크박물관 조감도.

(진주시 제공)

진주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살리기 나섰다

경남 진주시가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중소기업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7개 분야 60개 사업에 157억 7000만 원을 들여 지원시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율 0.5% 상향지원

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작년 확대한 융자규모 800억 원을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0.5% 상향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업체의 자산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최대 11억 원의 대출 규모에 일반자금은 2.5%, 우대자금은 3.5%의 이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에만 한정 지원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까지 확대지원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 SW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맞춤형 지원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에 적재적소 맞춤형 지원을 위해 근무환경개선, 인증수수료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정보제공 지원, 공모사업 컨설팅 등 14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보수에 대

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근무환경개선사업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비 등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은 기업 실수요를 반영,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해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을 추진해 총합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기술개발(R&D)·제조산업 성장동력 마련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예로기술,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소재부품기업 공정혁신 기술고도화 사업에 총 2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 부품소재 기반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예로 기술 해소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 고급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제조업과 ICT기술 융합을 통해 제조업 생산 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비 9400만 원 증액하여 8억 원(시비)을 지원한다.

또한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실크산업 전략적 개발사업 추진·바이오산업 육성

시는 실크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 마케팅의 다각화, 경영고도화 지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올해 이의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

중기성장 위해 7개분야 60개 사업에 157억 7천만 원 투입 맞춤형 지원 기업경쟁력 강화...제조산업 성장동력 마련 실크산업 전략적 개발사업 추진·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 중기 육성자금 이차보전율 0.5% 상향 지원·창업 생태계 활성화

업, 박람회 개최, 특화형 콜라보 콘텐츠 및 제품 개발사업 등에 총 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년 전통의 진주실크의 우수성과 명품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제품 개발과 전략적 판매 추진으로 시장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해 문산읍 실크전문단지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내 유일의 실

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공간이 될 대한민국 실크의 랜드마크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미래 신산업 지역경제 자생동력을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항노화 바이오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경상국립대와 지리산, 남해안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인접한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살려 진주시가 중심이 되어 서부경남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항노화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지원 육성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 추진

시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 육성 지원 및 창업기반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창업 지원사업으로는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교육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신용보증기관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판로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아이

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전문상담으로 기업의 경영·기술상 애로를 해소하는 기업성장지원단 지원사업 등

창업아이템,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친환경 창업기업 거점 조성을 위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및 상평산단 휴·폐업 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 등 시의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개척기반 구축 지원

시는 해외수출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에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기계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개별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해외지사화 사업, 수출기업 통번역, 수출보험료·수출물류비 지원 등 해외시장에 대한 마케팅 추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많은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아 기업경쟁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박종봉기자 bj@jeonmae.co.kr

I Dream 우주여행

"아빠~ 우주여행 떠나요!"

민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광진구, 10대 뉴스 1위 '자양4동 신속통합개발 후보지 선정'

2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3위 군지역 일대 상업지역 1.5배 확대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한 해 10대 뉴스를 1위에 자랑4동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10대 뉴스는 구민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한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과 다각적인 소통으로 이루어

성과들에 주안점을 두었다.

2위는 전 직원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12년만의 성과인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3위 군지역 일대 상업지역 1.5배 확대, 4위 구청장 직통문자·구청장 숙원 사업과 다각적인 소통으로 이루어

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운영이다.

이어 ▲광진구 200가구 보듬기 사업 추진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비우기 ▲착한 배달업 광진구 평겨요 오픈 ▲아차산 숲속도서관 개관 ▲군자역사거리 유턴차로 설치가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구는 민선8기 1호 결재로 시작한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와 '구청장 직

통문자·구청장과 만남의 날·현장방문의 날' 행사를 통해 오랜 시간 끌어온 갈등을 이해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내기도 했다.

또 '아차산 숲속도서관 개관'은 많은 관심속에 전 세대가 힐링할 수 있는 도심속 책임은 쉼터로 탄생한 명소 뉴스로 올해부터 취학 전 500권 이상 책읽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2022년 광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는 계기였다"며 "올해도 열심히 일한 우리 직원들과 열린 소통으로 구민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박물관 나들이 '스탬프 투어'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겨울 방학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아이들과 함께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에 슬세험 프로젝트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는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구립예술품전시관, 송파책박물관, 소마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몽촌역사관, 롯데월드민속박물관, 한국광고박물관 등 7개 박물관이 함께 진행하는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다.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는 스탬프투어 형식으로 진행해 재미를 더한다. 참여 방법은 7개 박물관에서 리플릿 및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감상활동지'를 지참하고, 각 박물관 별 프로그램에 참여해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된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송파구, 지역 맞춤형 교육에 5억 원 투입

문화예술·4차산업 기술·스포츠 등...민선8기 공약 '방과후 채움교실'도 추진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올해 5억 원을 투입해 공교육 현장에서 정규수업 외에도 다양한 교육이 필요에 맞춰 이뤄지도록 맞춤형 교육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해 말 기준 학생수가 6만7천여 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다. 교육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육구도 다양해 공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구는 우선 지역 강사와 직업인 멘토가 참여하는 것이 눈에 띈다. 구에서 양성한 전문 강사 78명이 학교 필요에 맞춰 직접 찾아가 인문교양, 문화예술, 기초학력 등의 창의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송파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멘토를 통한 직업 특강, 진학설명회 등 이론과 체험이 병행

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방과후 채움교실'도 본격 실행한다. 학교 내 유휴 공간이나 지역의 교육공간을 발굴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평일 오후 혹은 토요일에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학생 수요가 높은 미래창의교육, 예술·체육 교육, 만들기와 공예 체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한다. 구에서 5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학교는 필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고르면 된다.

▲댄스 발표회, 전시 개최 등 예술이 있는 즐거운 학교생활 운영 ▲AI·드론·코딩 등 4차산업을 경험하는 송파미래교육 운영 ▲농구·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 동아리 지원을 비롯해 ▲심리상담 ▲생태교육 지원이 주요 내용

이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2월 중 점수를 받아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송파청소년영화제'와 청소년도전프로젝트 '뫼디지'도 지속한다. 영화제는 전국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작 영화를 공모해 올해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뫼디지'를 통해서도 중·고등학교 동아리 다양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 지원과 함께 앞으로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 영어 원어민 강사 지원 등을 병행해 구민 누구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갖는 '교육장들의 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서울시 보건소 중 만족도 최고는 '동대문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주관...95.7점 획득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실시한 '2022년 서울시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점수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소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불만족 요인 및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구는 이 조사에서 서울시 종합 만족도 91.4점에 비해 43점 높은 95.7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조사항목은 ▲요소만족도(서비스질, 제공과정, 제공환경) ▲사회적 만족도(사회적 책임과 역할) ▲주요사업 및 정책평가 ▲시민요구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인식 변화로 구성되었고, 동대문구는 '서비스 제공과정'이 9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필형 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소외받지 않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국가자격증 수강료 지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인석)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취업난 해소와 구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2월과 7월 신청자를 각 15명씩 선정해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구민은 국가자격증을 취득 후 비용을 청구하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대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도봉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통해 구직에 성공할 때까지 상담 및 취업 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립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3년 영등포구립합창단' 신규 단원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1명), 여성합창단 솔리스트(소프라노 1명), 여성·시니어·소년소녀합창단 일반단원(각 10명 이내)이며, 모집 분야별 자격 요건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우리구 소식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응시자격, 거주지 및 연령 등 조건에 적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오디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진학설명회 7회로 확대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총 7회에 걸쳐 연중 '시기별 맞춤형 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기별 맞춤형 진학설명회의 첫 시작으로 구는 오는 22일 오후 3시와 저녁 7시에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초·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300명을 대상으로 '새학기 대비 초·중·고 학부모 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초·중학생 설명회에는 진로·진학 전문가인 임명선 강사가 교과별 학습관리방법, 유형별 고교 입학 준비 방법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국내 최고 입시전문가인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이영덕 강사가 변화하는 대입 전망과 대비 방법을 소개한다.

3기 홍보모델 분야별 모집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현)는 구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구 이미지를 구현하고 구정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3기 서대문구 홍보 모델'을 선발한다.

구는 유아(4~7세), 학생(8~19세), 성인(20~60세), 어르신(61세 이상) 등 4개 분야별로 모집한다. 서대문구 거주자로 모델 활동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유아, 학생, 어르신이 각 5명, 성인이 10명 등 총 25명 안팎이다. 위촉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이다.

참여 희망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프로필사진 1장과 자신의 개성을 담은 15~30초 분량의 영상과일을 오는 28일까지 이메일(mscybk17@sdm.go.kr)로 보내면 된다.

강남구의회,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신임 임원단과 면담

스마트복지 환경 구축 모델 논의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태)는 최근 의장 접견실에서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신임 임원단과 차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는 스마트복지 환경 및 유관기관들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형태 의장과 환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복지시설을 대표하는 각 영역별 임원들(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임원단은 ▲사회복지 현장 애로사항 ▲협의체 구성 및 임원단 소개 ▲협의체 사업 방향성 소개 ▲강남구 스마트복지 환경 구축 제안 등의



김형태 의장과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신임 임원단들이 차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남구 제공)

미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김형태 의장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제안해주신 사항들

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의회 차원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복지 현장의 고충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강동구, 명일동 미관광장 '청소년 안심존'으로

도시경관사업 공모 10억 원 확보

서울 강동구 명일동 미관광장이 청소년 안심존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대표적인 학원가인 명일동 미관광장(명일동47-11 일대)을 청소년들에게 꿈과 낭만을 선사할 '청소년 안심존'으로 바꾼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서울시 도시경관사업에 응모해 5억의 예산을 확보, 구비 5억 원을 포함 모두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경관사업은 서울시가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표적 브랜드로 창조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개선, 재정조하는 사업으로 구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사업 선정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미관광장은 고덕역 배후지로 120여 개의 학원과 반경 1km 내에 25개의 초

중고가 밀집된 지역이다. 이와 관련 구는 청소년 밀집 공간의 우범화를 막고, 휴식과 창의적 발상의 근거지로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이수희 구청장의 교육 관련 공약에서 출발했다. 먼저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걱정을 덜고, 청소년들에게 친교와 만남의 장소로 각광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등하원 차량으로 혼잡한 이면도로에 안전지대 및 구역을 설정하고, 아담고 후미진 지역을 밝고 깨끗한 휴식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공연, 모임과 토론, 상담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인근 명일동 평생학습관과 주변 학교와 연계해 청소년 심리과 진학상담, 입시설명회 등을 개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강동구의 좋은 교육환경을 체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은평오랑' 청년센터 기능 확대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 청년센터 은평오랑'이 새해를 맞아 청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이용 공간을 확장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청년들의 방송 크리에이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은평 오랑 안에 음향, 조명장치 등을 설치해 새로운 미디어 공간을 조성했다. 공간 대관, 대형 TV, 빔프로젝터, VR면접기 등 기기 대여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 1대1 맞춤형 종합상담은 MBTI, 에니어그램, 버크만 진단검사 등 청년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심리검사도 병행 추진한다.

이달부터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식재재 생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이농식품 등 위식은 가능하나 판매가치가 없는 식품을 대상 청년에게 제공한다. 내달부터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형천기자 limhc@jeonmae.co.kr

강북구 '짬짬이 청렴학습' 전 직원 청렴역량 강화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이달부터 전 직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짬짬이 청렴학습'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짬짬이 청렴학습'은 공무원들이 일상업무 시작 전 짧은 시간 쉽게 청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카툰, 드라마 등으로 청렴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를 위해 매일 접속하는 행정포털을 통해 효율적으로 청렴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했다.

또 올해 말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직자행동강령 및 총괄 테스트 등으로 구성된 24개의 콘텐츠를 공직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홍성수기자 HongSS@jeonmae.co.kr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14일까지 주민 참여를 통한 재정자치 실현을 위해 제1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건강안전, 교육문화, 도시환경, 복지경제 4개 분과 총27명으로, 공개모집 15명, 주민센터(지역회의) 추천 12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성북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성북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학생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희망자들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위원은 주민참여예산편성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우선순위에 심사, 조정,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1년 연임할 수 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종로구-조계사, 주민소통센터 운영 협약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전날 구청에서 '종로구주민소통센터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구와 조계사는 지난 2019년 '미술공공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을 맺었으며 올해부터 '주민소통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임형천기자 limhc@jeonmae.co.kr

서울시구청장협, 취약계층에 난방비 55억 추가 지원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이의 접수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구 표준지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1204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대비 평균 5.9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우편·팩스를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구청 이모저모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예산 1억9440만 원을 배정받았다.

신청대상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올해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가정이다.

일반 가정은 1대당 10만 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희망지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체사진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또는 구청 7층 맑은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치매 어르신 돌봄가족 봉사단 모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치매 어르신 돌봄가족 봉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봉사자는 일정 시간의 교육 수료 후 오는 4월부터 치매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가족 대신 말벗, 외출 동행, 안부 확인 등 치매 어르신을 돌본다.

모집대상은 정기봉사자(월 1회 이상 참여) 90명과 수시봉사자(연 1회 이상 참여)이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신고한 자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를 구비해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아숲체험원 이용기관 모집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유아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뛰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정기 이용기관' 총 70개소를 모집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총 4곳이다. 개울산 유아숲체험원(개봉동 산3-3), 잣절골 유아숲체험원(개봉동 45-2), 능골산 유아숲체험원(고척동 산8), 개울개울 유아숲체험원(개봉동 산53-3).

4곳 모두 3월부터 12월까지 주중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이용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용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며, 1개 기관당 25명 이내로 구성해 희망 요일과 시간대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

시 지원 제외되는 사각지대 30만 가구에 월 10만 원

이성현 협의회장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최선"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현 시대문구청장)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한파가 이어지고 난방비가 폭증함에 따라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대해 각 10만 원 씩 오는 2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지원에 맞맞춰 에너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에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빈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25개 자치구는 오는 20일까지 대상가구당 10만 원씩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현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으로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 모습. (구청장협의회 제공)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난방비 지원 이후에도 상시 점검으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중구, 세운지구 아파트 '입주 현장민원실' 운영

입주민 환영행사·연령대 맞춤 정보제공...새 이웃 편안한 정착 지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세운지구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2곳에 1636세대가 입주에 시작함에 따라 현장민원실을 꾸리고 환영 행사를 마련하는 등 새 이웃을 맞이 위한 준비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착공한 세운 푸르지오 헤리티지(인현동2가 151-1 일대)는 덕수중학교와 인접한 곳에 지하 9층, 지상 26층 규모로 1개 동, 614세대가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구는 오는 6-24일 세운 푸르지오 헤리티지 아파트 단지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초본 발급, 취득세 상담 등 이사에 수반되

는 행정업무를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아파트 계약자의 연령대가 주로 30~40대인 점을 고려해 맞춤형 '꿀팁'도 제공한다. 아파트와 100m 거리에 있는 인현시장 점포와 혼잡을 위한 식당을 소개하고 지난달 28일 문을 연 1인 가구 소통공간 '놀다'와 중구 1인 가구 '톡톡체널' 이용 방법도 알려준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을지유니크팩토리, 총무창업큐브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 정보도 제공한다.

구는 오는 24일 오후 청년 입주민 300명을 을지드림타워 아트홀에 초대해 세운지구 개발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공연과 홍보 부스 운영으로 따

뜻한 환영 행사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임정동 189-1, 2-4일대)은 정계천변에 지난 2019년 착공해 2개동이 각각 지하 8층, 지상 27층 규모로 세워져 현재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다.

구는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이 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만큼 내달 6~31일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편안한 정착을 돕기로 했다.

한편 중구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2만 437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다. 구는 도심의 낙후된 환경이 인구 감소의 원인이라고 보고 지난해 7월부터 구제 완화와 도심 재정비를 통해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임현찬기자 limhc@jeonmae.co.kr

노원구, 장애인 부담 줄이고 지원 늘렸다

전동보장구 자기부담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장애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은 확대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구의 장애인은 동거가족을 포함해 구민의 약 13%인 6만 5천여 명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중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38%로, 일반 구민(6%)의 6배가 넘는다.

장애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는 전동보장구 보험 자기부담금을 인하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조리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

는 등록 장애인 1200여 명에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을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감경했다. 보험료 전액을 구가 부담하기는 하지만, 저소득 계층에서는 자기부담금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총보상한도와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 조리원 인건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

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그동안은 구청에서 공공근로자를 배치했으나 공공근로 사업성격에 따라 근무시간이 서로 다르고, 공공근로자가 배치되지 않는 기간에는 각자 도사력을 준비하거나 시설에서 별도 조리원을 채용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식수인원이 많고 급식지원 인력이 시급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곳을 우선 선정했다. 시설당 매년 인건비 2700여 만원을 보조해 조리원 1인이 1일 6시간 근무하게 된다. 시설에서 직접 조리원을 채용해 시설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연말에 보조금을 정산한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양천구, 239개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이달부터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이달부터 52개 사업에 총 12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신청서류와 현장조사 이후 심의를 거쳐 지원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결과,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부문은 총 55개 단지에서 72개 사업지 원금 15억 4596만 원을, 옥외보안등 전

기료 부문은 188개 단지에서 1억 9500만 원 등 총 17억 4168만 원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올해 예산은 12억 원으로, 구는 전문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금액 선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51개 단지 52개 사업 14개 분야를 최종 선정해 9억 9000만 원을, 188개 단지의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요청 사항을 전부 반영해 1억 95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주요 지원 사업은 ▲1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의 장애인 진입 램프시설 교체 ▲전선에 닿아 위험한 수목 정리 ▲경로당의 낡은 시설 보수 등의 사업 ▲육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및 변압기 교체 등 주민안전 관련 사업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옥외하수도 준설·보수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사업경로당 개·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경비·미화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적극추진을 위해 인센티브(5~10%)를 부여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유성훈 금천구청장 '찾아가는 동 새해인사'

10개 동 방문...주민 의견 수렴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이 오는 7일까지 동네방네 주민을 찾아가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동 새해인사회'를 개최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찾아가는 동 새해인사회는 기존 동 주민센터 강당에 모여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생활 속에 들어가 지역의 현안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 구청장은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등 각 동의 주요시설을 방문해 주민과 함께하면서 건의사항 등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가산동을 시작으로 독산2동까지 새해인사회 기간 동안 오전 1개 동, 오후 1

개 동을 돌아보고 주민대표와의 오찬 간담회, 동주민센터 직원과의 차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가산동은 6벨리 소재 후원업체, 독산1동은 우시장, 독산3동은 모두의 학교 등을 방문해 지역의 주요 건의사항을 유심히 들어보고, 일반주택이 밀집해 있는 독산2동, 시흥1동·5동은 지역사회 후원에 참여하는 나눔가게, 지역이동센터, 취약계층 등 돌봄이 가정을 두루 살펴봄과 주민과 소통하는 일정으로 구성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동 새해인사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송파구의회,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지원업무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이날 송파구의회 의정실에서 '정책지원관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구의회는 2022년 6월 6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했고, 이번에 7명을 추가 채용해 총 13명(현원 11명, 결원 2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게 되었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의정활동

동 자료수집·조사·연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지원 ▲조례·예산안 심의·의결에 관한 지원업무 등이다.

박경래 의장은 임용장 수여식에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정책지원관들이 배치됨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제안이 더 활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추윤구의장(왼쪽 6번째)이 적십자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파구의회 제공)

광진구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이웃사랑 실천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1일 올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에는 추윤구 의장을 비롯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 이동길 의원 등 구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추 의장은 이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계신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광진구의회도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의원들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재 지원

인천 용진군은 서해5도 노후 주택개량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주택 중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 없는 주택에 현황도면을 등재 지원하는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군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재 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건축인허가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해 실측, 도면 제작 후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등재하게 된다.

박광미 군 건축과장은 "군은 도서 지역으로 균형 방안 상담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및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재 지원 서비스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맹창수 기자fchcs@jeonmae.co.kr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선정

인천 계양구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7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에 취약한 어린이집, 경로당, 취약계층 가구 등 총 18개소에 쿨루프쿨링 도색공사와 창문 단열필름 시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사업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무더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전까지 사업을 조기 준공할 계획이다.

인천/맹창수 기자fchcs@jeonmae.co.kr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강법석 인천 서구청장이 '균형과 화합, 내일을 담다!'라는 주제로 서구 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3월까지 1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연두 방문에서 강 구청장은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건의 사항 등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서구는 신거북시장 판매시설, 체육센터 건설 현장 등 각 지역에 현장 방문도 진행한다.

강법석 구청장은 "이번 연두 방문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맹창수 기자fchcs@jeonmae.co.kr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협약

인천 부평구는 최근 구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철도공사와 경인선 백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1호선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이달부터 실시설계를 시행해 오는 7월 착공, 내년 2월 완공할 예정이다.

구는 또 협소한 주변 공간 때문에 안전을 위한 법률 및 기술 검토를 거쳐 백운역 2번 출구 계단 우측에 따로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구와 한국철도공사 가 50%씩 분담한다.

인천/맹창수 기자fchcs@jeonmae.co.kr

적십자 특별회비 50만 원 기탁

인천 중구 운서동 통장자유회는 최근 회원들이 모은 적십자 특별회비 50만 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매년 운서동 통장자유회는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기간에 더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양진수 통장자유회장은 "이 기부금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중매 운서동장은 "적십자 회비 모금운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통장자유회에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 나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 中企 3395개사 해외 판로개척 지원...65억 확보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은 2일 "올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해외 판로개척, 수출 인프라 확충, 중국 마케팅 지원 등 3개 분야 38개 사업을 협력기관(인천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코트라 인천지원단,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과 협업, 관내 중소기업 339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특정 국가로 편중된 시장을 다변화 하기 위한 '해외 판로개척'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중국, 미국 위주에서 동남아, 유럽연합(EU), 중남미 등 해외 유망(특수)시장의 유력 바이어와의 매칭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동남아 유럽연합 등 틈새 시장 개척 지원 수출 초보기업 위한 우수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계획

상담을 연계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기업 일정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글로벌 셀러저 사업, 글로벌 유망 온라인 플랫폼(B2B) 입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쳐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다.

또 시의 독자적인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무역사무소 운영과 우수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국내 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과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및 자유무역협정(FTA)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센터 운영, 수출 초보기업 대상 수출 멘토



<下>

링,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보험보 증료 지원,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 수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 무역 인력 양성 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의 체력을 한층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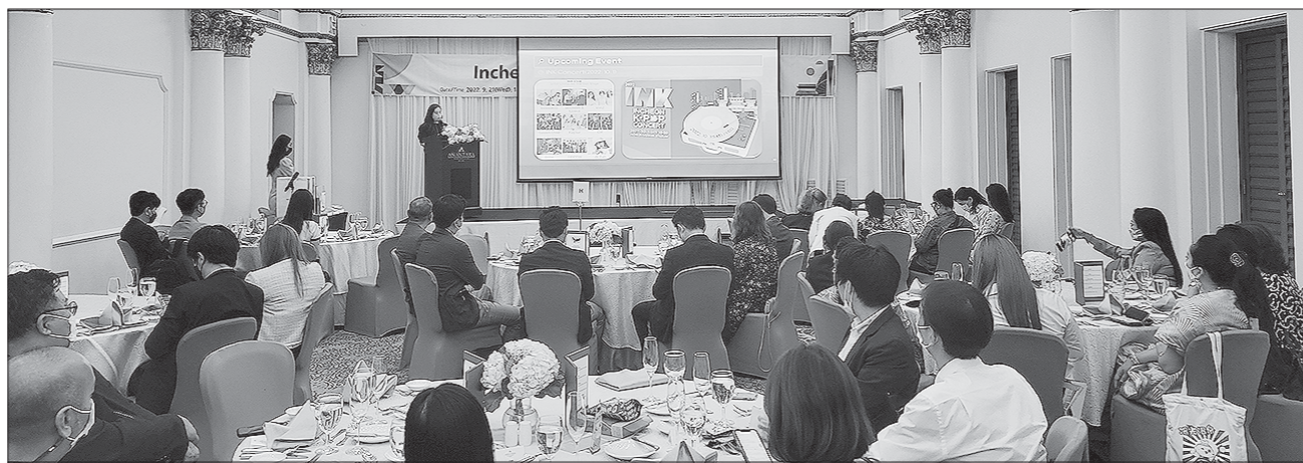
인천지역 최대 교역국인 중국(수출 비중 28.3%) 및 독립국가연합(CIS)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마케팅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지역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과 외국어 통·번역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미·중 긴장 고조,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상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탄력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국제관광 회복세에 따라 동남아 지역을 전략시장으로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을 선정 본격적인 기획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인천관광공, 동남아 관광객 유치 총력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국제관광 회복세에 따라 외국 단체 관광객들이 인천을 더욱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와 관광공사는 동남아 지역의 전략시장으로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을 선정해 본격적인 기획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달 관광공사 관계자들의

필리핀 방문을 시작으로 베트남, 태국의 대표 여행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 국가들의 공무원 단체와 청소년 수혜여행단, 산업시찰단 등 특수목적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이 만난 사람 (中) 허식 인천시의회의장

“4개 통계목 총액한도제 해제, 예산편성 자율권 확보”

인천시의회의 허식 의장은 "현재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인 만큼, 이들 4개 통계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반드시 해제해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의회의 중앙부처 건의안에 대한 행안부 회신을 보면, 거의 모든 안전에 대해 검토 또는 수용 곤란으로 회신한바, 이는 행안부 차원에서 건의안에 대한 실현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처사라 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또 최근 국회에서 발의 중인 지방의회기본법도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파트를 단순히 분리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만큼, 향후 지방의회기본법이 자치조직권 및 자치예산권 등 제반 문제를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힘을 모아 자율성·전문성·책임감을 갖춘 지방의회의미래상 정립할 것

허 의장은 "이를 위해 지난 12월 22일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그리고, 12월 26일 4대 지방협의회 회장단과의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이재호 연수구청장, 15개동 주민과 대화 성료...“열린 소통 행보 이어갈 것”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옥련1동을 시작으로 15개 동을 돌며 새해 정책 목표와 비전을 설명하고 지난해 성과와 2023년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과 대화를 했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정은 15개 동에서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모두 172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해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옥련동, 연수동, 동춘동 등 원도심 지역에서는 옥련동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이전, 승기천 일대 시설물 관리, 주차장 확충 요청, 송도테마파크 추진 등 모두 109건의 의견과 건의사항들이 나왔다.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송도 내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정비, 송도 내 중·고등학교 설립, 송도세브란스 병원 조속 추진,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 등 63건의 건의사항들이 제시됐다.

구는 이번에 제안된 건의사항들에 대해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들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타 기관과 협력해 주민 불편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만들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열린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맹창수 기자fchcs@jeonmae.co.kr

IFEZ 송도국제도시 B1 블록에 근린 상가 들어선다

정주환경 열악...주민 의견 반영

IFEZ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 시티(6·8공구) 국제업무용인 B1 블록에 근린 상가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 생활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이곳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향후 토지 공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B1 블록에는 1~6층에는 근린상가가 들어설 수 있게 됐으며, 7층부터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또 B1 블록 바로 옆에 위치한 국제업무용지 B2 블록에 대해서도 임시 송도5동사무소 이전 등 주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 상반기



이후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한다.

경제청의 이러한 결정은 송도 8공구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입주인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학원, 대형마트, 근린 상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해 정주환경이 열악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곳의 인구 과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진용(사진) 경제청장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이미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한 송도국제도시를 더욱 국제적인 교육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 차상위 계층도 난방비 추가 지원

4만여 가구 10만 원 지급

인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차상위 계층에게도 선제적으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일 지역 전체 차상위 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40억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세대) 가구에 10만 원씩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규모는 당초 122억 원으로 발표했으나, 지원 대상을 재산정한 결과 133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에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아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

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체 차상위 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차상위 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정규모는 모두 173억 원이 되는 셈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유정복 시장은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동구 '창영초 이전 계획' 중투심 부결...“아쉽다”

인천 동구는 창영초등학교 발전을 위한 인천교육청의 '창영초 이전 계획'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결(본지 온라인판 2월 1일자 교육면 보도)과 관련, 동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2일 "창영초교 발전을 위한 이전 계획이 동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안이었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돼 정말 아

쉽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구는 2026년 금송구역과 지도관구역에 5670가구 입주 시작되면 900여명의 초등학교생들이 유입돼 창영초의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49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창영초 발전을 위한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들 구역의 초등학교를 모두 수용하려면 36학급이 필요하나, 창영초는 현재 최대 20학급만 편성이 가능하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42개팀 참가 3일부터 5일간

원더풀 삼척컵 전국유소년축구클럽 페스티벌이 삼척복합체육공원·종합 운동장에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열린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U-8-U-12 등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5개 학년 총 42개 축구팀과 관계자, 감독, 학부모 등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방식은 U-8,9,10(초등학교 2-4학년)은 전·후반 각 15분, 10분 휴식, 6인제 경기, 1삼제로, U-11, 12(초등학교 5-6학년)는 전·후반 각 20분, 10분 휴식, 8인제 경기, 2삼제로 풀리그와 토너먼트 경기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어머니 승부차기, 저글링 콘테스트 등 이벤트 경기도 마련된다.

삼척/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지원

강원 고성군이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을 비롯해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특화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나선다.

2일 군에 따르면 노후시설 개선의 경우 2년 이상 제조업 경영업체를 대상으로 노후 생산시설 개선분야에 자부담 50% 이상 기업 당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로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해 자부담 50% 이상 1억 원 한도로 환경오염방지 시설, 해양심층수 급수 관련 각종 설비사업, 유동·보관 및 판로시설을 지원한다.

고성/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대외협력사무소’ 서울에 개소

충남 공주시는 국회·중앙부처 협력과 소통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대외협력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외협력사무소는 전신인 서울사무소가 지난 2019년 폐쇄 이후 4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시의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대외협력 사무소는 앞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동향 파악, 국비 확보 및 국책사업 유치 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 온누리공주 시민 확보, 기업 유치 등의 주요 업무를 맡는다.

공주/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가세로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 예타 면제 재촉구”

“단순 경제논리로만 접근 안돼...단절 가로림만 연결 서해안 국가산업 관광도로망 구축 반드시 필요 사업”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재 촉구하고 나섰다.

가 군수는 2일 “국도 균형개발과 연

관된 사업을 단순 경제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로림만 교량 건설은 단절된 가로림만을 연결하고 서해안 국가산업 관광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

조했다.

가로림만 교량 건설은 바다로 막힌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과 서산시 대신읍 독곶리를 연결하는 사업로 해상교량 2.65km와 접속도로 2.96km, 총 연장 5.61km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건립 시 이원~대산 간 거리가 기존 73km에서 5.6km로 줄어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고속

도로 접근성이 높아져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사업비는 약 3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나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기획재정부 기준보다 낮아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 군수는 서해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의 예타 면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충남도도 교량 건설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청도군, 고향사랑기부제 한달 2천여만 원 모금

경북 청도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 달 만에 100여 명이 동참해 2,086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2일 밝혔다.

청도/변경호기자 byeon_kh@jeonmae.co.kr

아산시 ‘신정호·남산근린공원 조성’ 본격화

신정호 지방정원사업 225억 투입 3개 정원 조성

남산근린공원 1단계 85억 투입 녹지·주차장 조성

충남 아산시는 아트밸리 아산의 문화 예술 플랫폼이 될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남산근린공원 1단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총사업비 255억 원이 투입되는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가설 펜스를 설치하고 지장물을 옮기는 등 해빙기 공사 준비가 한창이다.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신정호 정원(Flower Garden), 생태체험 정원

(Eco Garden), 연꽃정원(Eco garden)으로 나뉜다.

신정호 정원(Flower Garden) 구역은 물빛정원, 음지 정원, 텃밭식물 정원, 세계 식물정원 등 주제 정원과 신정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수변 전망대 등이 갖춰진다.

특히, 공모를 통해 일부 구간에 정원 디자이너와 시민 작품 등으로 구성되는 참여정원을 조성해 한층 의미 있는 공간과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남산근린공원 1단계 조성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신정호관리소에서 인공암벽장 앞 미조성구간에 녹지와 주차장 171면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공원 접근성이 향상돼 한층 편하게 신정호수 공원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귀 시장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신정호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예술, 시민이 함께하는 수변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의 본격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박상돈 시장 “K-컬처 박람회 행정력 집중”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성공적인 ‘K-컬처 박람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2일 오후 8월 11일~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K-컬처 박람회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철저한 행

이올러 “아간에 이뤄지는 행사 가 많은 만큼 관광객들이 숙박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셔틀버스 교통편 등도 문제가 없도록 미리 움직일 것”을 지시했다.

박 시장은 “독립기념관 야간개

공직자들 소극적 태도에 쓴소리

숙박·교통편 등 준비철저 주문

사 준비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K-컬처 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고품질 문화 역량과 독립기념관을 활성화하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공직자들이 정당성에 확신을 갖고 K-컬처 추진위원회와 긴밀하게 행정 공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체류형 박람회이자 글로벌 박람회를 운영해 한국 문화의 근본정신인 ‘K-스피릿(Spirit)’을 주제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와 세계 문화 교류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석용기자 syk@jeonmae.co.kr

청양군, ‘찾아가는 버스병원’ 서비스 본격화

충남 청양군보건의료원은 ‘찾아가는 의료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의료원은 이동이 어려운 교통·의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보건의료원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은 매월 2~

3회 주말을 이용해 검진버스와 함께 대상 마을을 찾아가는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중단 위기에 놓였지만 군은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청양/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를 금연입니다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금연, 모두를 위한 약속!

나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금연,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1. 공공장고에서는 금연하기
2. 임산부의 영유아 앞 금연하기
3. 흡연시 건물 입구에서 10M이상 떨어지기
4. 흡연 후엔 주변 깨끗히 하기

나는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광주시, 북구 신안교 주변 악취 연내 해결한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전남 목포시가 도 주관 지역·산업및
출생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2
개 사업이 선정돼 도비 2억 5천만 원
을 지원받는다

선정 사업은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일자리 지원사업'과 '스마트 문화관광
청년신중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총 사
업비 3억 6천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양산단과 세
라믹산단 등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
중심의 구인기업 및 구직자를 중심
으로 구직자 심층상담 및 중소기업 인
식개선을 통한 미스매칭률을 최소화
하는 취업연계 사업이다.

또한 청년신중년 창업 지원사업은
목포상공회의소와 협업해 18-60세의
청년 및 신중년 대상으로 전문교육 프
로그램 운영 등이다.

목포/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올바른 구강건강교실' 운영

전북 순창군은 오는 14일까지 노년기 어르신들
의 입속 건강 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올
바른 구강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구강건강교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
상으로 경로당에 의사, 치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구강관리 교
육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구강 질환의 원인 및 예방법,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한 입 체조법, 치아 모형을 활용한
잇솔질 체험을 비롯해 틀니세정제를 이용한 틀
니 관리 요령 교육을 병행하며 구강관리의 중요
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순창/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경남 함양군은 행복주택 공사세대에 대한 입
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서 접수를 오는 6
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접수는 군 행복주택 101동 주민공동시설
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우편접수는 6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등기우
편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니라 순위·배정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장접수 시 혼잡한 시간을 피
해 방문하면 보다 빠르게 접수할 수 있다.

함양/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설 명절 특별판매 18억여 원 성과

경북 예천군은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예천장
터'를 통해 설맞이 특별 판매행사를 진행한 결과
18억여 원 매출액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

품목별 5%~30%에 이르는 할인판매와 10+1,
20+1 혜택, 신규가입자 할인쿠폰 및 구매금액별
즉시 할인쿠폰 지급 등 적극적인 이벤트 행사로
신규가입자 수가 특판행사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해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또 우수 농특산물 카탈로그 제작 및 우편발송,
출항 기업인·예천장터 우수고객 대상 전화상담
및 맞춤형 주문 판매로 거래 고객의 폭을 다양하
게 넓혔다.

예천/장세천기자 jangsch@jeonmae.co.kr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경북 안동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문화
체육관광부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
됐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이벤트는 해외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K-로드쇼'와 연계한 체험행사 개최, 현지 여행
업체와의 공동 방문 상품 개발, 한국관광 해외홍
보 누리집(www.visitkorea.or.kr)을 통한 상세정
보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한국방문의 해외 연계
해 집중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탈과 탈춤을 테마로 전 세계인이 신명 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한민
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이달말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악취 밀폐 구조물·차단막 설치

광주지역 주민숙원 사업 중 하나인
북구 신안교 주변 하수 악취 민원이 연
내 해결될 전망이다.

시는 이달 말 '신안교 주변 하수 악취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비공사는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악취 밀폐를 위한 독립 구조물
과 차단막, 별도의 악취저감시설을 설
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1985년부터 용봉천과 서방천에서 이
송되는 우수와 오수를 한데 모아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하수시설이 교량 의
부에 노출된 채 설치되면서 해마다 주
민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시는 하수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단단한 바
위로 돼 있는 신안교 하부의 특성상 교
량 균열 등이 우려돼 시행하지 못했다.

또 기존 하수시설을 폐쇄하고 용봉천

과 서방천의 합류지점에 하수시설을 새
로 짓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사업비가
206억 원이나 소요돼 추진하지 못했다.

시 수질개선과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
해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연구했고
사업예산 절감과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

이를위해 시는 실시설계에서부터 공

사가 끝날 때까지 대학교수, 용역사 전
문가들로 구성된 '신안교 악취저감 TF
팀'을 운영해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기
로 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국장은 "그
동안 해결책을 찾기 못해 장기간 방치
된 하수 악취 민원이 연말까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김영선기자 kys@jeonmae.co.kr



노관규(오른쪽 세번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이사가 부영그룹 이희범(왼쪽 세번째) 회장으로 부터 기부금을 전달받고 있다. (순천시 제공)

부영그룹,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2억 기부

전남 순천시는 부영그룹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2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노관규 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조직위원회 이사는 시상실에서
부영그룹 이희범 회장이 참석한 가
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창업주 이준근 회장은 2013정원
박람회 후원회장을 역임하면서 5억
원을 지원했었다.

노관규 이사는 "2023정원박람
회 성공을 위한 부영그룹의 통 큰 기
부에 감사드린다"며 "2023정원박람
회는 2013정원박람회의 리뉴얼이
아닌 완전히 달라진 박람회로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
을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순천
은 2023정원박람회를 통해 미래 도
시가 따라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
시하겠다"고 말했다.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의령 홍의장군축제에 초대합니다"

의병제전서 명칭 변경 첫 개최 드론멀티쇼 등 프로그램 확대

경남 의령홍의장군축제가 오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동생활공원 일원
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의
병제전에서 의령홍의장군축제로 명칭
이 바뀌는 첫해로 축제 원년의 해 선포
식을 여는 등 '새로운 기분'으로 관광객
을 맞이한다.

(사)의병기념사업회는 최근 160여

명의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첫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홍의
장군축제 성공을 다짐했다.

이번 축제에는 들뜬처럼 일어난 전국
각지의 의병을 만나보는 '가칭'전국의
병주제관을 최초로 설치·운영한다. 이
는 의병의 수도인 의령에서 중장기적으
로 추진하는 의병엑스포 유치에 위한
첫 행보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홍의장군 캐릭터 대형조형
물 설치, 드론멀티쇼, 축제장 퍼레이드,
버스킹 등 프로그램 확대와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어린이 놀이공원과 다
양한 쉼터가 있는 힐링존을 확대해 모
든 방문객이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역
사문화관광축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
획이다.

오태완 의병기념사업회장은 "지난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의 성공으로 홍
의장군축제 준비에도 자신감이 가득하
다며 객체주 장군의 거침없는 용기와
기상으로 축제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의령/최판규기자
chpag@jeonmae.co.kr

공공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경북도' 서비스 개시

도민증 발급·보조금·농어민 수당·병원진료 서비스 등 신청

경북도는 1일부터 공공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북도'의 대국민 서
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공데이터 플랫폼
(공무원)·앱(대민) 개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경북도민증 발급 ▲비대면
보조금 신청·지급 ▲대국민 시범 관광

서비스 ▲공공플랫폼 연계 활용이다.
또 올해부터 '모이소' 앱을 통해 농어
민 수당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
도 연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문경시와 협업해 4월부터 전
에서 문경시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

로 관광지 방문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
이다.

한편 앱 서비스 가입 후 관광지 방문
을 QR로 인증하면 모바일 지역농산물
할인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관광지 방문
객 데이터를 수집해 향후 더 많은 관광
객이 도를 방문할 수 있는 관광정책 개
발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창원시, 진해군항제 동북아 대표축제 육성

'군항·벚꽃·방산' 3대 키워드 추진 2026년 1천만명 관광객 유치 목표

경남 창원특례시는 지역 대표축제 진
해군항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군항제는 군항, 벚꽃, 방산의 3대 키워
드를 중심으로 오는 3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열흘간 진해구를
비롯한 시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진해군항제에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이
라는 상징성과 해양관광 도시의 특장점

을 더해 축제 브랜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진해 중원로터리 인근에
집중돼 있던 주요 행사 권역을 진해루·
해군사관학교 등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난장 형태에서 벗
어나 감성기 깃든 푸드마켓, 아트마
켓 등 시민 참여형 장르로 새롭게 조성
하고 창작뮤지컬 안골포해전, 경화역
Love Story 공모전 개최, 이순신 아카데미
특강 등 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행사
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확 달라진 축제
분위기를 선보인다.

창원/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최병매 순천시의회 의원, 현월자 1만원 상품권 지급 조례 개정안 발의

전남 순천시가 앞으로 현월자에게
지역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
망된다.

시의회는 2일 최병매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순천시 현월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월자를 장려하
기 위해 지역 내 혈액관리 기관에서 헌
혈을 한 사람에게 1회에 1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길원 대기자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 원 지원

5천만 원 이내 대출...2.5% 이자 지원

경남 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450억 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5000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
인으로 제조건설음식관광업은 10인 미
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

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규모는 총 450억 원으로 상반기에
230억 원, 하반기에 220억 원이 시행되
며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
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
보대출을 통하는 두 가지가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13
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gnsinbo.or.kr)에 예약 또는 방문
해 상담예약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진주/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하동 핫플레이스 사업 후끈...관광객 유치 탄력

관내 사업체 72건 접수...시설개선지원

경남 하동군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핫
플레이스 지정사업에 많은 업체가 참여
하는 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군은 지난달 3일부터 20일까지 모집
한 핫플레이스 지정사업에 관내 사업체
72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 관내 핫한 각종 숙박·체
험시설을 비롯해 카페, 식당, 다원·다실
 등이 신청하는 등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반응이 뜨겁다.

핫플레이스 지정은 접수된 72개 사
업체와 전문 용역업체가 관광객에게 가
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분석한 인기 있는
곳 중에서 지정사업에 많은 업체가 참여
하는 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정된 핫플레이스는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되고 포토존·테마공
간·핫플 인터리어 조성 등 시설개선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하동/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경북 영양군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영양읍을 시작으로 6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영양군 제공)

영양군, 6개 읍·면 현장 방문 성료...군정방향 설명

경북 영양군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
간 영양읍을 시작으로 6개 읍·면을 순
차적으로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군정방침인 '동심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각 읍·면의 이장과 기관
단체장 등에게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민선 8기 주요핵심 추진 분야로 동서
남북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 생산에서 판매까지

행정이 책임지는 잘사는 농정기반 마
련, 전국 최고의 '생태 브랜드'를 바탕으
로 생태관광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관
광인프라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다.

한편 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청취한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건
의사항은 적극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양/김광원기자 kw_kim@jeonmae.co.kr

고흥군,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발 벗고 나섰다

고부가가치 육성방안 모색

전남 고흥군이 미래 고부가가치 축산
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분야 사업 시행지침과
추진요령에 대한 전달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고흥 한우의 명성을 확
고히 다지기 위해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 브랜드화 추진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승송비 지

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안내 ▲
한·양방 등록의무화에 따른 등록절차
등 축산정책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산정책 교육에
서 140여명의 단위사업 시행지침을 숙
지해 보조금 집행·정산과 사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농가가 사업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사업
대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
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포항지역 철강산업 재도약 '기지개'

철강산업1~4단지·대송면 제내리 준공업 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 "지원책 발굴"

경북 포항 철강산업이 정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비롯한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과 산단대개조 사업에 연이어 지정되면서 제도약하고 있다.

포항시는 2일 철강산업1~4단지, 대송면 제내리 준공업지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

역에 2년간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포항의 5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대부분 철강산업과 연관된 기업으로 수년째 이어진 철강경기 침체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로 심각한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생산실적, 영업활동 및 고용사정 악화 등 여건을 분석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북도와 지속 협의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입주기업과 새로 입주할 중소기업은 향후 2년간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된다. 또 자금우대, 전용 R&D, 사업 다각화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태풍으로 시설, 기계, 원자재 등 극심한 피해를 입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 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



안성시, 반도체산업 성장 위한 지역대학과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산업의 환경변화 및 산업수요에 공동 대응하고, 기관 간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인력양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성/ 유원수기자 youys@jeonmae.co.kr

(구)농림축산검역본부, 81년 만에 시민에 개방

안양문화예술재단-검역본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협약 체결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일대가 '상상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 개최하는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전담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오는 8월 25일부터 11월 2일 까지 '7구역 - 당신의 상상 공간(ZONE 7 Your Imaginary Space)'이라는 주제 아래 APAP7을 추진 중이며, 안양예술공원 일대의 야외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실내전시를 통해서도 공공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전역을 81년 만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며 ▲실내 전시장 내 아트 라이브러리 및 아카이브 전시자료 구축 ▲국내 학술컨퍼런스 개최 ▲연계 부대행사 등을 추진한다.

최대호 재단 이사장은 "이번 APAP7은 야외전시에도 더해 실내전시를 함께 개최해 시민들의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sj@jeonmae.co.kr

원주시 "제주도 벤치마킹 특별자치도 성공 모색"

원장수 강원 원주시장 및 시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문단 등 벤치마킹 참가자들은 견학 1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센터를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부터 현재까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협력·교류·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각 시·군의 특례 반영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이라며 "이러한 특례 반영을 위해 의회적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장수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와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사례를 벤치마

강해 각종 지원 특례에 대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방문해 양정철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관광, 교육, 의료, 첨단과학 분야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성과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공유했다.

원 시장은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 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대천·무창포해수욕장 7월 1일·8일 일제 개장

보령시, 올해 해수욕장 기본계획 확정... "안전·쾌적" 방침

충남 대천해수욕장이 오는 7월 1일 개장하고 신비의 바다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8일 개장한다.

보령시는 이같은 2023년 해수욕장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개장 전 관광객 맞이 위해 6월까지 편의시설 점검 및 확충사업을 완료하고 수질검사 및 토양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갖추기로 했다.

또한 유관 기관·단체장 운영계획 간담회 및 개장준비 추진상황 보고회, 준비상황 현장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개장 기간 대천해수욕장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일 2회 해수욕장 클린업 타임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환경정비, 공중화장실 관리 등 근무 인원을 투입하며 물놀이 안전요원·해수욕장 진료소를 운영

해 깨끗하고 안전한 명품 관광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노을광장부터 만남의광장까지 전면 해안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교통안내소를 운영해 공영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차장 계도 및 단속을 나선다.

무창포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청결 관리, 클린업 타임 운영, 물놀이 안전 관리,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 개장 기간 관광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관영기자 leegy@jeonmae.co.kr

정선아리랑 '호주 에델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

'아리 아라리' 공연팀 참가 3월 6일부터 19일까지 개최

정선아리랑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 아라리' 공연팀이 올해 최대 규모의 축제 호주 에델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세계 3대 공연축제 페스티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5800여개의 공연 단체들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의 공연예술축제이다.

오는 3월 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호주 에델레이드 프린지는 전세계에서 모인 아티스트들이 363개의 공연장에서 1200여개의 공연을 선보인다.

군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문화콘텐츠의 중심인 K-Culture 확대와 세계속 문화로서의 아리랑 가치 제고를 위해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 아라리가 에델레이드 축제를 방문하는 글로벌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정선아리랑은 2018 동계올림픽 개막공연에서 70여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새롭게 주목을 받는데 이어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한 이번 '아리아라리' 해외 공연은 축제기간 총 7회를 공연하게 된다.

한편 군은 '아리아라리' 공연을 전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연단 규모를 확대하고 전국 투어 공연을 추진하고 4월부터 정선5일장날 마다 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상설공연을 진행한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노인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강원 철원군은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올해 5개의 사업단, 1915명의 참여자를 선발,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형 1787명, 참여자의 경력 및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서비스형 52명, 소규모 매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62명, 각자의 적성에 맞는 사업을 연계하는 취업알선형 14명 등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심쿵(커피숍)과 철공이바탕(어르신 도시락) 등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원/ 지역복지자 jmbi23@jeonmae.co.kr

인구감소 대응 정책위원회 개최

강원 횡성군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인구정책'을 추진을 위해 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인구 기본현황과 인구정책 추진방향 등 공유 및 6대과제 100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 정책 개선에 대한 건의, 2023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인구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군은 '모든 세대의 행복한 미래를 구현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추진,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김명기 군수는 "인구정책의 출발점은 지방소멸 위기감에 대한 군민 인식이 최우선"이라며 "정책사업 추진과 인구위기에 대한 군민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횡성/ 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본격화

상반기 설계 용역 마무리 하반기 착공 2025년 준공

충남 서천군이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본격 나섰다.

군은 2일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과 바이오 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최적의 지식산업센터가 설계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최종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에 건립예정인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6500평방미

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기업 입주공간과 기업편의시설, 회의실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설이 조성한다.

특히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이후 정착에 성공한 기업은 인근 산업단지로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또 장항산단을 정부의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도 유치하기로 했다.

김기용 군수는 "바이오 관련 기업의 지원 기반을 구축해 제조업과 지식산업 보육, 창업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지금이 핏타이밍

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면, 쓰이기 시작했다면, 쓸 예정이라면-
삼성화재 애니핏 플러스

건강체크 세브란스 시 연구소에서 개발한 질병위험 분석
일상케어 운동, 기록미션 달성하고 포인트 받고!
고급케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생활습관 개선 프로젝트

내 몸에 핏하게, 애니핏 플러스로 챙기세요

지금이 삼성화재 anyFIT PLUS 다운로드 할 타이밍!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니핏플러스 이용 대상은 만 15세 이상,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본인인증이 가능한 사용자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 하였고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사인확인번호 제24-5852호(브랜든전력파트, 22.08.25-23.08.24)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오늘의 날씨 출근길 찬바람 땀쟁이

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1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보됐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가뭄우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생활지수

- 운동 50 외출 80
빨래 60 세차 60

삼척기찼다리기 내일 엑스포광장서 개최

강원 삼척시는 삼척기찼다리기보존회(회장 최종용) 주관으로 3일 엑스포광장 기찼다리기마당에서, 4일 12시 30분 삼척우체국 사거리 인근에서 삼척기찼다리기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3년도 삼척 정월대보름제 기간동안 개최되며, 삼척기찼다리기보존회 회원들이 모여 기찼을 만드는 과정인 슬베놀이를 재연한다.

삼척기찼다리기는 바다의 게 모양의 줄을 당기는 시합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삼척을 대표하는 전통놀이이다.

시 관계자는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2023년 삼척 정월대보름제를 맞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리 시 소중하고 무형유산인 기찼다리기와 슬베놀이를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삼척/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당진농기센터, 전국 최초 초유 냉동자판기 개발

충남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최초 초유 냉동자판기를 개발해 설치했다.

2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갓 태어난 송아지의 혈청 속에는 외부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형성돼 있지 않아 출생 후 24시간 동안 초유를 통해 면역물질을 공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우는 초유양이 적을 뿐 아니라 어미소가 송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젖먹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한우농가는 초유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초유를 확보해 저온 살균 냉동 처리 후 한우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초유은행' 사업을 2004년부터 펼치고 있다.

이번 자판기 개발로 인해 24시간 내 송아지에 초유를 급여하기 위한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감해 송아지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축산관리실 입구에 설치된 냉동자판기에 인적 사항과 축종을 입력하면 냉동 초유 1리터 3개를 공급받을 수 있다.

구본석 미래농업과장은 "축산농가가 우량송아지 육성관리에 이용해 한우농가 소득증대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서천군·군산시, 합동 연날리기 대회 개최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어르신 건강을 기원하는 합동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4일 금강하구 김인전공원에서 서천·군산 풍물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노인현장 낭독, 서천·군산노인회 정례교류 협약식, 소망기원 연·풍선 날리기,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참가자들에게 지역 특산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군은 1500년의 오랜 역사와 깊은 품미를 자랑하는 소곡주를 준비했다.

홍성갑 군 사회복지실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여주 삼교동 주민들 폐기물 업체 상대 소송 제기

지난해 12월 여주지원에 '피해 배상·업체 소각금지' 제기
사망 진단서·주민 질환 진단서 첨부 시에 집단민원 접수

경기 여주시 삼교동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시에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거주 주민 8명은 작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는 최근 시를 방문해 사망자 6명에 대한 사망 진단서와 거주 주민 23명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한 집단 민원 진정서 접수했다.

해당 소송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전환된 가운데 주민들은 폐기물업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피해 배상과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페콘크리트, 페아스콘, 폐벽돌, 타일, 인조석, 석면, 시멘트 덩어리 등의 파쇄나 및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할 수 우려가 있는 폐합성수지, 페플라스티크, 폐고무, 폐섬유류 등의 소각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관계자인 주민 A씨는 "문제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미세먼지, 분진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최근 몇 년간 사망한 사망자는 12명으로 이중 6명의



경기여주 삼교동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

사망 진단서를 첨부했다"고 말했다.

사망 진단서와 별도로 현재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주민 23명의 진단서도 첨부해 폐기물업체에서

2021년 10월 폐암으로 사망한 B씨 남편의 경우 2022년 12월에 폐질환 수술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C씨 부부의 경우 폐암과 협심증·고혈압 등 중증의 상태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또 다른 주민 D씨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외 폐암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망 진단서나 각종 질환 진단서를 통해 폐기물업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증명되고 있다"면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이나 폐쇄를 시에 강력 촉구와 자신들의 요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은 시와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의 추가 취재를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여주/김연일기자 YI-kim@jeonmae.co.kr



강원 속초시 장사동 일원의 주민들이 2일 간담회를 갖고 군부대 고도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속초시 제공)

속초 장사동 주민들 군부대 고도제한 해제 촉구

고도제한 완화 간담회 개최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요청

강원 속초시 장사동 일원의 주민들이 인근 군부대 때문에 30년 동안 고도제한으로 각종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사유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해당지역 주민들은 간담회를 갖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용전기통신설비로부터 반경 2km내에 해당되는 속초시 장사동 지역의 고도제한 규제 사유 재산권 침해 및 구 시가지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 고도제한 해제를

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원도의원, 강원도·속초시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주민들은 30년 이상 고도제한으로 토지효율감소 및 사업 수익성 저하로 재개발·재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구감소로 발전 동력을 상실하여 지역 쇠퇴가 지속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인공위성을 활용한 전파 송수신이 이뤄지는 시대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제 폐지를 위해 강원특별법 특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은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조치계획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강원특별

법' 특례 반영 추진과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신, 정부 규제혁신 과제 제출 등 강원도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속초시 및 지역 주민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호 강원도 의원은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군 관계자를 이회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성림 부시장은 "민선8기 이병선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북부권 개발을 통해 도심 균형발전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안양시, 출생아 지난해 166명 증가... "출산 정책 등 효과"

경기 안양시 출생아 수가 2021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66명이 늘어났다고 2일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뚜렷한 가운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주민등록 기준 3443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아 수 3277명보다 무려 166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 3443명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민간구는 1376명

으로 전년 대비 35명이 증가했으며, 동안구는 2067명으로 전년 대비 131명이 증가했다.

시는 민간구 안양6동, 동안구 비산1·2동, 호계3동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와

만안구 35명·동안구 131명 증가 출산축하용품 제공 등 지원책 마련

모 주택단지 인구 유입과 출산 및 청년 정책 등이 출생아 증가를 견인했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2021년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가

운데 예절교육관 야외정원 작은 결혼식장 무료 개방, 출산축하용품 190여종 40만 원까지 제공, 42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및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 운영 등 인구·출산 정책을 추진하며 인구 증가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다둥이네 보금자리' 사업은 미성년 자녀 4명 이상인 저소득 가정에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둥이 10가구가 입주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안양/배진석기자 baesj@jeonmae.co.kr

관리 사각지대 치과기공소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

경기특사경, 사전검사 10곳 중 5곳 적발...수사 확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치과기공소 중 360개소를 선정해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일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따르면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도는 지난달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

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등이다.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장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치과기공소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환경관리 사각지대였던 만큼 이번을 계기로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민기자 han_YM@jeonmae.co.kr

보령소방, 대형공사장 단속... "안전 환경 조성"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충남 보령소방서는 오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대형공사장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사법 일제 단속팀을 구성,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관련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주민의 화재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사법 일제 단속팀은 특별사법경찰 팀장, 특별사법경찰 담당

자, 소방특별조사 담당자, 민원업무 담당자로 구성, 대형공사장과 화재 취약대상 등을 단속한다.

특히 소방시설 공사·감리업에 대한 불법 하도급, 소방관련법 기준 위반, 임시 소방시설 적법 설치 여부, 위험물 관리 위반사항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소방사법 일제 단속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일제 단속을 통해 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아산시, 악취 배출 사업장 10곳 합동 점검

적발시 형사고발 등 조치

충남 아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중점 관리 악취 배출사업장 합동 점검에 나선다.

2일 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축산시설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지속 초과하는 사업장 10곳을 선정했으며, 분기마다 정기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5개 부서 6개 팀으로 구성된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 등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 축산업 허가 및 비료생산업 허가 사항 등을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고의적 또는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등 강력 조처에 나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악취 중점 관리 사업장을 지속 관리 감독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난방비 폭탄'에 비닐하우스 재배 농민들 '시름'

기름값·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재값 150~200% 인상... '3중고·4중고' '면세유류·전기요금 인상분 농민들 위한 특별지원책 확대 절실'

기름값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사에 필수적인 자재를 석유에서 추출하다 보니 기름값이 오르면 자재값도 덩달아 올랐다. 비료의 경우 예년보다 150~200%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기름으로 가동하는 온풍기 대신 조금이라도 저렴한 전기를 쓰는 발열등으로 교체하는 농가도 있다. 제때 비닐하우스 난방을 하지 못하면 서 생육 부진으로 출하를 미루는 농가나, 졸업·입학 특수도 누리지 못하는 화훼농가도 끝 모를 한숨을 내쉬고 있다. 축산 농가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어민들도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담 가중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양식장의 경우 펄프와 산소발생기 가동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양식어가들은 약 1만㎡ 규모로 양식장을 운영하면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20~30% 올라 2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할 정도로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생산 원가 중 전기요금이 13%를 차지한다.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어가당 연간 평균 전기료가 5천200만~1억5천600만 원 추가 부담돼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면세유류 문제해결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유관 부처,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연맹 관계자는 "규모가 큰 시설재배 농가는 난방비만 3천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며 "농민들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일부 지자체도 호응

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12월 시설원에 농업인이 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에 10당 130원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했다. 전남도는 농어업인들이 지난해 4분기에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비비 73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면세유류가격 인상분 50%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금 268억 원에 도와 시군의 긴급 예비비 252억 원을 투입한다. 홍승수기자 HongSS@jeonmae.co.kr

애플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소비자 집단소송 1심 패소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천800여 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총 원고는 6만2천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했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

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0년 3월 미국에서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4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최대 5억달러(약 6천억 원) 이하 현재환율 기준)로 추산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같은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국 34개주에 총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375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황윤기 기자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압수수색 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상민기자

서울시, 룸카페·멀티방 특별 단속 나선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초·중·고 주변... 적발시 시정명령·과징금·벌금 부과

서울시는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한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해 청소년들의 탈선·위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

변과 청소년 유희업소 밀집 지역이다.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 부착,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소홀,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미부착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사건·사고

2살 아들 사흘간 방치 숨지게한 20대 엄마

사흘간 2살배기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집에서 나가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면서 아들을 두고 외출한 이유는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신탄진IC 인근 음주사고로 1명 부상

대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IC 3km 전방에서 1일 오후 9시 48분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사고를 낸 승용차가 뒤집어지면 서 옆 차선을 지나던 5t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를 낸 50대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모텔서 한 달간 감금...대출 강요당해

인천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한 달간 감금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5시에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감금돼 작업 대출을 강요받았다"는 20대 A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달 초 지인 소개로 20대 B씨를 찾아가다가 한 달가량 모텔에 갇혔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모텔에서 탈출한 뒤 행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신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맹창수 기자 mchs@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캠페인 - 일상생활 속 환경을 살리는 습관

즐거로운 탄소중립 생활

지구를 지키는 환경실천, 함께 동참해 주세요!

탄소중립은 사람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2050년까지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리수거

재활용이 가능한 캔, 유리, 페트 등 분리배출하기

에너지 절약

사용하지 않은 플러그는 뽑아 사용 대기전력 차단

대중교통이용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하기

나무심기

기념일 또는 식목일에 나무를 심어 뜻깊은 날 만들기

일상생활 속 버려진 플라스틱은 들고 돌아 결국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바다생물들에 큰 피해를 끼칩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바다 먹거리로 돌아와 우리 식탁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어제 버려진 플라스틱이 내일 우리의 식탁 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연과 우리를 위해 플라스틱을 줄여요

동정

정월대보름제 개막식
박상수 강원 삼척시장은 3일 오후 4시 30분 삼척 엑스포광장에서 진행되는 '2023년 삼척정월대보름제 개막식'에 참석.

산불진화감시원발대식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3일 오전 10시 보령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산불 전문진화대와 감시원 발대식에 참석.

화산면삼부리마을화관개소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3일 오전 11시 화산면 삼부리 마을회관 개소식에 참석.

직원조회 참석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는 3일 오전 9시 1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직원조회'에 참석.

입춘방짜주기행사
박범인 충남 금산군수는 3일 오전 10시 금산군청 민원실에서 열리는 입춘방 짜주기 행사에 참석.

정월대보름민속놀이 한마당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3일 오후 1시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기원정월대보름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에 참석.

이석진 신임 원장 취임

경기 군포산업진흥원 제3대 이석진 원장이 취임했다. 이석진 원장은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군포청년회의소(C) 회장, 군포문화원 비상임 이사를 지낸 바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7대 군포시 지방의회 상반기 부의장과 하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이 원장은 취임식에서 "언제든 기업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경청하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업 체감형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군포/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서영주 신임 지원장 취임

제35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으로 서영주 지원장이 취임했다. 서영주 신임 지원장은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출을 지원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농관원 전남지원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신임 지원장은 나주 출신으로 1994년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공직을 시작,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산물유통국,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정책국, 운영지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거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길원 대기자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 게재됩니다

“인성기반 학력신장” 새로운 출발 원년의 해 만들 것

전국매일신문이 만난 사람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교육은 혼자할 수 없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취임 이후 하 교육감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춰 뛰어왔으며, 올해 ‘인성기반 학력신장’ 새로운 출발의 원년을 삼기위해 준비 중에 있다.

이에 하윤수 교육감을 만나 올해 부산 교육의 방향성과 여점사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인성교육’, ‘학력신장’을 손꼽았으며, 이를 중심으로 올해도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산학력개발원은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학력 상태에 대한 진단평가와 데이터 기반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학력 향상,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원했다.

하 교육감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에는 부산학력개발원이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며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격차 해소 대책에 대해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동서학력 격차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을 통해 학생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학력 신장 및 동서교육 격차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학력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교실안’, ‘학교안’, ‘지역연계’를 통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실 안에서는 담임교사가 밀착한 방과후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는 학습뿐 아니라 정서·행동·물품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 겪는 학생들을 상담, 복지, 담임교사 등이 입체적으로 진단해 통합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연계를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해 난독, 경계선 지능 등 특수요인으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이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돼 심층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공정포럼사단법인 공정한국 동해본부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윤공정포럼 이사장(왼쪽부터) 박동태, 박재동,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지역정치 활성화·활발한 사업 펼쳐 나갈 것”

시민단체 (사)공정한국 동해본부 출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강원 동해지역 시민단체인 윤공정포럼 사단법인 공정한국 동해본부 (본부장 김학기)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102호에서 창립 발기인대회 및 개소식은 윤공정한국 대표 조성경, 최병남 부회장, 박재동 강원본부장, 심인석 삼척지회장 등 중앙본부인직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의왕시장애인체육회 육근하 신임 사무국장 임명

경기 의왕시장애인체육회 신임 사무국장에 육근하(62)씨가 임명됐다. 신임 육근하 사무국장은 “다양한 맞춤형 체육 서비스를 개발·운영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의왕시장애인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의왕/배진석기자 baesjs@jeonmae.co.kr



특히, “올해 3월에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을 출범시켜 공교육을 통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성 교육을 강조한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해에는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구체화해 독자적인 인성교육 브랜드를 만들고, 기존의 부산학생교육원을 부산학생인성교육원으로 탈바꿈하는 등 인성교육의 기반을 다졌다”며 “창의성 교육이나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소홀해진 ‘인성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기

학생·학부모·교사 공감대 형성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소통공감실’ 신설…매월 2차례 ‘교육감 만남 Day’ 추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생인성교육원을 부산 인성교육의 중심축으로 만들고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하 교육감은 “인성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체육활동도 중요하다”며 “단위 학교 실정에 맞는 0교시 아침 체육 활동 전개, 1학년 스포츠 활동, 학교 간 체육대회 및 교류 활동 확대, 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 걷기대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면이 풍부하고 고운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술적 감수성 및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학생에게 희망사다리를 놓음과 동시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외국어 교육, 진로 교육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하 교육감은 시민과의 소통도 쉬지 않고 있다. 취임 이후 교육감 소통공감실을 신설해 매월 2차례 ‘교육감 만남 DAY’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접 부산 시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올곧은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교육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늘 생각해왔다”며 “부산 시민, 교육 가족과 함께 중지를 모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 교육감은 “최근 몇 년 동안 교권이 무너졌던 기사를 많이 접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며 교권침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심한 인성교육이 부족,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 문화가 많이 퇴색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사의 적합한 지도 방법과 권한이 없는 것도 교권침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하 교육감은 수업방해 대응지침, 교사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교육 활동이 정상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교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의 장이라든지 교육자료, 가이드 라인, 매뉴얼 개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 교육감은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활동 보호가 왜 중요한지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하 교육감은 “지난 6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부산교육의 비전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기에 어느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새해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모두의 꿈이 제대로 영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대영기자 jdy@jeonmae.co.kr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경기력 향상 위해 보호자 파견 인원 확대해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 경기 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 결과(안) 등 총 3건을 원안결했다.

이병욱 부회장은 “전년도까지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사업 중단, 연기, 취소가 발생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19 이슈 없이 정상추진이 예상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운영이 되도록

좀 더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타 의견으로는 장애인선수가 경기에 집중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보호자 파견 인원 확대를 요청했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올해에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경기도 장애인체육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han_YM@jeonmae.co.kr

경콘진, 콘텐츠 창의학교 산학연계 프로그램 시작

경기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산학연계(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콘텐츠 실무 능력 강화 및 콘텐츠 분야 취업 유도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생들은 개별 매칭된 도내 기업에서 10일간 디자인 또는 영상 직무를 체험하며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한다. 참여 기업에는 프로그램 운영

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며 학생에게는 약 30만 원의 프로젝트 활동 수당이 지원되며, 학생들은 2월 중 10일간 매칭된 기업에서 디자인 또는 영상 콘텐츠 분야의 기업 실무자에게 교육과 실무 멘토링을 받는다.

디자인 직무를 신청한 학생은 주로 캐릭터·웹툰·브랜드 디자인 실무, 영상 직무를 신청한 학생은 주로 촬영·편집·시나리오 기획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한영민 기자han_YM@jeonmae.co.kr

포토뉴스



이선구 경기도의원 도시재생 업무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직무대행) 이선구 의원(더민주·부천2)은 지난 1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재생과장과 팀장에게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사전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평택시 지역건설관련 단체대표들과 만남

경기 평택시는 최근 관내 민간 건설현장 관계자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평택시협의회 등 지역 건설관련 단체대표와의 정보교류를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평택/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임병택 시흥시장이 고흥사랑기부 동참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전날 고흥사랑기부체 활성화를 위해 농협 시흥시부장과 함께 고흥사랑기부체에 동참했다고 2일 밝혔다. 시흥/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이혜원 경기도의원 북부센터 운영계획 업무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최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북부지역의 '22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3년 북부센터 운영계획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한영민 기자 han_YM@jeonmae.co.kr



거성종합건설 정병태 대표 장학금 기탁

강원 고성군 거성종합건설 정병태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고성형토정학회 장학금 2000만 원을 함평준군수에게 기탁했다. 고성/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보령시 공공안전 제고위한 중대 재해 예방 교육

충남 보령시는 지난 1일 보령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현업사업장-공공시설 관리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안전 제고를 위한 중대 재해 예방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보령/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충남개발공사 안전 실천 결의대회

충남개발공사는 전날 임직원 및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홍성/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정치권력의 정당성 회복 ②

칼럼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정치구조는 편향성이 심하다. 범주인 출신이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남녀의 성비와 연령이 기준이 되는 560대 남성의 비중도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여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개선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이 사실상 차단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세력 간 협력체제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같은 정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 같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대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정당의 출현과 협치가 가능한 제도는 만들어져야 한다. 선거가 정권을 평가하고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지방의회의 1/2 동시선거와 지역단체장과 국회와 지방의회의 1/2를 2년에 중간선거로 선출하여 선거의 효율성과 권력평가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승자 원칙에 따른 사표방지를 위하여 중대선거제인 현행의 소선거구제든 정당별 총 득표율에 따른 100%연동형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제도의 형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중심제이든 내각책임제이든 제도의 운용에 달린 것이다. 그러한 제도의

운용은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제도 운용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선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중적 성향이 통제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제도의 점점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집단지성에 근거한 제도의 운용이다. 그러나 집단지성의 가치는 한 순간의 다수의견이나 대중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는 시간과 인내를 통해 역사의 흐름 속에 커다란 줄기로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냉정하고 현명한 국민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독일이란 나라가 히틀러를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IT의 발전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기술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요한 정책을 대중에게 물어 결정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국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명분이 되어야 하지만 이는 시간과 인내를 통한 충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에 대한 승복의 미덕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론조사나 주민투표가 남발하는 정치적 상황은 갈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충분한 시간과 합당한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정치개혁의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다. 모든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봉사에서 시작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개혁일정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 목표는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그것은 정치권력의 폐쇄적 구조의 타파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정치구조의 확립이다. 그리고 모든 사회분야뿐만 아니라 세대와 남녀를 아우르는 다양성의 확보와 공정성의 확립에 있다. 방법적인 차원의 정치개혁은 이러한 목표 위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지나온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하나의 일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여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과의 교감과 공감의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운용의 문제이고 보면 정치권의 개방적 구조 실현

다양한 저출산 대책 기대한다

데스크칼럼

최재혁

지방부국장



명도 안된다든 얘기가. 함께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 아니라 누군들 실질적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겠는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저출산 극복이 국가 존망이 달린 화급한 과제를 우리에게 재인식시킨 경고장에 다름 아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발족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대응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로 인식됐기에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자문위가 탄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제몫을 못했다. 출산 장려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도 세계 최저 출산국가로 전락한데는 실효성있는 정책 발굴에 실패한 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최근 미국의 언론과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CNN은 그 원인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자녀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과, 동성 결혼 및 비혼 커플의 입양 불허 등 사회적 요인 등을 꼽았다. 밑위키인 디펜던트는 알뜰한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 비싼 집값, 성 및 사회 불평등, 낮은 계층 이동성, 잔인하게 경쟁적인 사회로 인한 막대한 육아 비용과 가부장적 문화를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는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3세대 내에 인구 수가 현재의 6% 이하가 될 것이고, 그 대다수는 6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제적 전망도 부정적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초등대학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소멸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고령화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최근 내놓은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오는 2050년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5대 경제대국 순위도 현재 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에서 2050년 중국·미국·인도·인도네시아·독일 순으로 재편된다고 했다. 2075년에는 중국·인도·미국·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가 5대 경제강국 리스트에 오른다.

골드만삭스는 인구를 국가경제 규모를 결정할 핵심요소로 봤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나라들이 든든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경제를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해서 인구 증가세가 안정적인 나이지리아, 멕시코, 이집트, 파키스탄, 필리핀 등이 1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한국은 퇴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지난해 함께출산율은 0.81명이다. 남녀가 결혼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가 1

명도 안된다든 얘기가. 함께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 아니라 누군들 실질적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겠는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저출산 극복이 국가 존망이 달린 화급한 과제를 우리에게 재인식시킨 경고장에 다름 아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발족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대응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로 인식됐기에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자문위가 탄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제몫을 못했다. 출산 장려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도 세계 최저 출산국가로 전락한데는 실효성있는 정책 발굴에 실패한 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얼마전 이 위원회의 실무 책임자인 나경원 부위원장이 해임됐다. 3년 하가리 임명된지 불과 3개월 만에 물러났다. 우선 국가 백년대계의 구상을 맡기겠다고 발탁한 인물을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경질하는 경박한 인사부터가 황당했다. 일종의 거래성 인사였다는 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절박한 의지를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가시지는 않는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지난해 기자들을 만나 "현행 신혼부부 주택·전세 자금 지원시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헝가리의 출산 장려정책을 소개했다. 헝가리는 신혼부부에게 일단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자녀를 낳을 때마다 혜택을 확대한다. 첫 아이를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를 탕감하고 셋째 출산 시 전액을 탕감하는 식이다.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여러분의 투고, 사진, 민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전화 1588-5182 / 팩스 031-758-4300 / 홈페이지 jeonmae.co.kr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전국매일신문 www.jeonmae.co.kr

대표전화 1588-5762

정 치 부 031-755-5800 지 방 부 031-755-5622

경 채 부 031-752-0256 광고문의 070-4325-3898

사 회 부 031-755-3484 FAX 031-758-4360

전국취재본부

서울본부 02-749-0922 세종본부 044-865-8000

인천본부 032-751-1478 강원본부 033-251-4866

대구본부 053-471-1111 충남본부 041-668-3722

광주본부 062-361-0145 충북본부 043-255-8877

경기북부본부 031-967-1616 제주본부 064-723-1950

경남본부 055-761-7882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1997년 6월24일 창간(등록번호 가-43호(일간))

본사등록: 중국 요령일보사 조선일보

구독료: 월 1만6,000원 / 1부 7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허 관 수

전남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장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몇가지 소개한다.

첫째, 보일러는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해 설치한다. 실내에 설치할 경우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연통 안에 찌꺼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보일러 연통에 남아 있는 그을음을 제거하고 타기 쉬운 천장 등에 연통이 닿는다면 연통을 연연성 단열재로 덮어 열이 전

달되는 걸 막아준다.

셋째, 보일러 주변 2m 반경 내에는 가연물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화목보일러 주변까지 강한 복사열이 전달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인화성 물질이나 불에 타기 쉬운 장작 등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보관한다.

넷째, 화목보일러 사용 시 투입구 부분을 꼭 닫는다. 투입구를 닫지 않을 경우 불티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화목보일러 사용 후 투입구를 열 때 보일러 내부의 열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측면에서 서서히 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일러 인근에 초기 화재에 도움이 되는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간이소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관심과 실천이다.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 위대한 성공 뒤에는 최고의 전략이 숨어 있다!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

46억 년을 살아남은 동식물 100여 종의 생존 전략

인류는 왜 자연에서 배워야 하는가?

*** 화제의 도서 ***

*** 경영자 추천도서 ***

"게으름 조차 나무늘보의 전략이었다!"

정희석 지음 | 값 14,800원

자연은 46억 년을 유지해 온 최고의 전략 교과서!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자도, 가장 현명한 자도 아닌 변화하는 자다. 김수민

1부 인류의 힘을 키워준 소통전략

영원한 승지도 패자도 없는 생태계 자연을 지배한 작고 약한 유전자 인류의 경쟁력의 원천이 된 소문 능력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

2부 강자를 만드는 약자의 전략

집중의 전략, 하나의 목표를 추구할 때 역량이 강화된다 사자 | 공작, 청동모리 | 인데카투스

협력의 전략, 동지연 강해진다 라카온 | 울혈버휘 | 장이리

디테일의 전략,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 피리 | 도기 | 마생통

물무오선 전략, 국한된 환경이 살길을 만든다 비무나 | 뿔하리독수리 | 행간 | 꼬이

보협의 전략, 위험을 분산시켜 위기를 피한다 소몰이카사리 | 새문, 사당인물레 | 피세기자후림 | 유상생식 | 할마키

기다림의 전략, 인내의 결과는 달다 허무살이 | 독대 | 피무기

3부 행복을 가져다주는 배려의 전략

역발상의 전략, 행운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울혈버휘 | 김자 | 권송

자기개발의 전략, 선택할 수 없으면 비교하지 않는다 인내의 전략, 고통은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 거미 | 흰물벼이 | 작은맛쟁이·나비

선택의 전략, 하나를 열으면 하나를 버려라 고래 | 기면 | 타조

배려의 전략, 51%만 이긴다 주어·날개박쥐 | 피리독스 | 황새

4부 미래를 열어주는 준비전략

선점의 전략, 한발 앞서 살아남는다 독새울 | 복수초, 노주귀 | 개구리 | 변은종, 함은종

적응의 전략, 변화하는 환경을 이용하라 해랑 | 나무늘보 | 크리스마스섬쥐

연결의 전략, 세상의 많은 것들은 순환한다 언어 | 미국회색늑대 | 매무기

공존의 전략, 함께해야 모두가 살 수 있다 힐렌지 | 게이 | 대구 | 사바나의 초식동물

마무리 전략, 남아 있는 흔적이 발목을 잡는다 고수리 | 상어 | 해삼 | 자람이 | 간극동물

고령화 시대의 전략,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 황유고래 | 코끼리 | 황수이

KMAC

주요 오프라인 서점 정찬리 판매 중

전화 02-3786-0182 | 팩스 02-3786-0107

이메일 deolu@kmac.co.kr

여러분의 참신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Ski Half-Pipe in Freestyle HP


국내 유일의 휘닉스평창하프파이프 전용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고의 스키하프파이프 코리아 오픈 전국매일신문에서 주최하고 대한스키협회와 함께하여 전연령층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프리스타일 이벤트



2023 전국매일신문배 코리아오픈 스키하프파이프 대회

2023. 02. 03 / 금

휘닉스평창 하프파이프 전용슬로프

- 주 최 | 전국매일신문
- 주 관 | 플레이영
- 후 원 | 강원도·강원도의회 ·  경기도체육회 · 대한스키협회
- 종 목 | 하프파이프 스키
- 참가대상 | 초·중·고·대학·일반부 스키어
- 시상부문 | 전 종목 1·2·3위

※ FIS(국제스키연맹)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룰과 경기운영방식에 근거하여 운영